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6월 11일(목) 제 3338호

천호성 "이재명도 음주운전 논란 있었다"

인수위 구성 해명 과정 발언 '파장'
인선 배경 "의회 소통에 필요" 설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약 충돌 논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출범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1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예시로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 당선인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 공식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던 현직 시의원의 인수위 합류 및 자진 사퇴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당선인은 "해당 시의원은 본인이 인수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어제 자진 사퇴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은 알고 있었고 고민도 했으나, 도의회 등 의회를 담당할 소통 창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음주운전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선거 당시 상대인 이남호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강하게 몰아붙였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과거 선거 공세와 상반된 인사라는 지적을 의식하면서도 정치권의 타 사례를 끌어와 해명한 것이다.

특히 해당 시의원이 향후 도교육청 정책국장이나 교육협력과장 등 주요 개방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천 당선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잘 못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미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을 열어놓고 전북 교육에 어떤 분을 모셔야 가장 좋을지 고민하겠다"라 설명하며 추후 도교육청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한, 선거 기간 내내 부패 및 비위 행위에 대해 강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약과 이번 인사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기준점은 당선 후 같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을 포커스로 맞추며 던진 용어"라며 취임 전 발생한 측근의 비위 이력에는 해당 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논란이 된 본인의 전주교대 연구년(안식년)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 인수위는 특정 진영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닌 전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기구"라며 "학력 신장과 미래역량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무너진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영한 신림초 교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최낙관 예원예대 교수, 최광수 우석대 교수, 박일관 전 군산교육장, 김형기 전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 조정현 YMCA 사무처장, 최은경 진안여중 교장, 정성식 이리남초 교사, 정재균 전북대 강사, 최정애 전북교육연수원 부원장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로봇화 시대 연다

김제에 426억 투입 실증 기반 구축
원격협업·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북도가 건설현장의 고위험 고소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실증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큰 용접·도장·내화뿜칠 등 고소작업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험 작업의 자동화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26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호룡 등 전국 26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건설현장 특화 로봇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시설 건립은 올해 본격 추진되며, 인간-로봇 원격 협업 기반 고소작업 시스템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소작업 로봇시스템 시험연구장비 구축과 연구동·실증동 조성, 실외 고소시험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확장현실(XR) 기반 원격 협업기술(용접·도장·내화뿜칠)과 자율주행·정밀제어 기술을 접목한 고소작업 로봇 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현장 실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고소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건설로봇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가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사 고

제 14회 자연사랑·자연보호
전북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에게 그림을 장려하고 예술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서 안정과 사회성 형성은 물론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초등학생과 교육 관계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모 기한 : 2026년 6월 8일(월)~7월 9일(목)
△ 공모 부문 : 그림(만화 포함)
△ 입상자 발표 : 2026년 7월 13일(월)
△ 입상자 시상 : 2026년 9월 4일(금)
△ 참가 대상 :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 작품 주제 :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 용지 규격 : 8절지 크기(B4 용지)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
전북자치도의회의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의회의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 접수 방법 :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 접수처 :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 5층
전북타임스 본사. 문의 (063)282-9601, 9604
△ 주최 : 전북타임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김성수 "비판 막는 정당, 도민 심판 받을 것"

민주 도당 당원 징계 움직임 비판
"정당한 문제 제기 징계로 대응"

김성수 前 후보

김성수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전북 민주당의 일부 당원 징계 추진과 관련, "민주주의를 징계하는 정치는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전북민주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에게 해당 행위 징계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낀다"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당규 적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정 후보를 지지했느냐가 아니라 경선 과정의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전북민주당은 이에 답하기보다 징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견을 말하면 해당 행위라고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배신자라고 하며, 다른 선택을 하면 징계하겠다고 한다"라며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건강한 정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북의 경제 현실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결해 지적했다.

<2면에서 계속>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군산시, 기후부 공모 선정…494억 투입 침수예방 강화

전국 첫 '물순환 촉진구역' 4곳 포함
월명동 원도심 일원 사업 추진
빗물저장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물순환 회복·도시환경 개선 기대

전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사업'에서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홍수 등 다양한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공모 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사업을 준비해 왔고, 군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모 신청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사업 발굴과 계획 보완, 대응 전략 마련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 이번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시 물순환 촉진구역은 월명동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총 494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빗물저류조 설치와 빗물이용시설, 투수성 포장 등 물순환 시설을 확충해 도시 침수 예방과 물순환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총 40,500톤 규모의 빗물저장시설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평상시에는 저장된 빗물을 활용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 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까지 금번 공모에 선정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군산시가 2028년부터 실시계획 수립, 사업착공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군산시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향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물순환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그는 "왜 전북 경제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으며, 왜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가"라며 "그 원인은 단순한 경제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치가 변화를 거부해 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정책이 경쟁하지만, 비판이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진 곳에서는 정치도 늙고 경제도 늙게 된다"며 "전북의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민주당을 향해 "전북은 오랜 시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온 지역인 만큼 누구보다 겸손해야 한다"며 "더 많은 비판을 수용하고 더 많은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 변화 거부 경쟁·비판 소멸…등 돌리는 도민 두려워해야"

김 후보는 "당원들의 정당한 비판을 징계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징계하지 말라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비판하는 당원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도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민주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전북민주당은 과연 얼마나 변화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경제에는 무능하고 정치에는 오만하다는 도민의 평가가 굳어지는 순간 전북민주당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질문할 권리이고 비판할 권리이며 선택할 권리"라며 "앞으로도 전북 민주주의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12대 교육위 마지막 회기…노후시설 개선안 심사

교육시설 개선사업 집중 심사
학교 신축·개축 등 6건 안건 상정
12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0일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제12대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군산진포중학교 본관동·중간동 개축 △개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전주솔내고등학교 식생활관 이전·개축 △삼례동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교육위원들은 개축·신축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과 시설 완공 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으며,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오는 12일 제428회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정점식 선출

정책위의장 출신 3선 의원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 당선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윤석열계)인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투표수 103표 중 김도읍 후보 48표, 정점식 후보 55표로 정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날 원내대표 경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인 성일종 후보가 탈락했고, 곧바로 상위 2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월부터 당 정책위의장으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온 친윤계이다.

때문에 김도읍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이미지가 친한과 친윤, 제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느냐. 그게 국민 인식"이라며 "정 후보가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됐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일종 후보는 '정 후보가 정책위의장으로 지도부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성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패했다고 입장을 밝히셨다면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책위의장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에 나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국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이같은 후보들의 지적과 관련, "김 의원과 성 의원에게 보낸 표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3년에는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이끌었다.

/서울=김영묵기자

송영길 "차기 지도부, 대통령과 긴밀히 개혁 추동해야"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 경계 주문
"이대통령 평택을 패배 실망" 거론
전대 앞두고 당 지도부 비판

송영길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해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다.

차기 전대 출마가 유력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의 포럼에서 "개혁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권여당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남은 국정 과제는 자본시장 투명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치우쳐진 세수 효과와 이익을 어떻게 AI 에이전트 사업, 소부장 산업 투자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가 각 장관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하고 견인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힘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렵다"며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중요한 이유"라며 차기 당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권 초기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정치적 자본으로 그것은 국민 지지도인데 이를 함부로 쓰면 소모된다"며 "예를 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해 줬더니 상당히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에 우선적으로 정치적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을 이끌고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산 관리와 자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함께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정 대표를 애둘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평택 선거를 바라보는 (이대통령 시각이) 지도부의 느낌과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께선 당연히 평택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원 소홀로)너무 실망했다는 모습이 보여진 것"이라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

정동영 "전북 AI 검·인증 중심지로 육성해야"

AI 신뢰성 혁신 실증 착수보고회
"전북 AI 경쟁력 강화 기대" 밝혀

정동영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에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전북형 AI 신뢰성 검·인증 모델 구축의 본격 추진을 축하하고, 지역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되며,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신뢰성 검·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지역기업 지원방안,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 구축계획, TTA 검·인증 연계 지원, 전북 특화산업 기반 실증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전략 등이 논의됐다.

AI 신뢰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투명성, 설명가능성, 데이터 품질, 편향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간감독, 운영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향후 공공조달, 해외진출, 대기업 납품,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 전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

특히 전북은 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기계부품, 제조, 에너지, 피지컬AI, ICT융합 등 AI 적용 수요가 높은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지역 특화형 AI 신뢰성 실증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서 완성된다"며 "전북이 AI 신뢰성 검·인증과 실증의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이 AI 기본법과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특화산업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TTA의 협력을 통해 전북에서 검증된 AI 신뢰성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동네돌봄의사 운영 본격화

전주시 35개 동마다 의사·한의사 각 1명씩 매칭 의료사각 가정 방문

전주시 의료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위한 동네돌봄의사 의료지원에 나선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의료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위한 동네돌봄의사 의료지원에 나선다.

의료지원은 의사가 직접 의료돌봄 사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의료문제를 해결해 준다.

특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1-3차 군분류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의료자문 지원 △의료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중점관리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주시 의사회 소속 의사 20명과 전주시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5명이 35개 동에 의과·한의과 1명씩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최근 고혈압과 당뇨, 천식, 요실금 등 여러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 중인 준와상 상태의 한 노인은 병원에 갈 수 없어 대리 처방과 고관절 부위의 반복적 욕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네돌봄의사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사용이 좀 더 편리한 천식흡입기 교체 안내 및 욕창 예방을 위한 공기침대 사용 권유, 욕창 대처 방법 등 보호자 교육을 함께 진행해 도움을 주고있다.

동네돌봄의사 도움을 받은 한 노인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12일 개막

소리축제 키워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본 행사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제25회 소리축제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축제의 예술적 성과와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조직위원장(최철)과 집행위원장(김정수), 조직·집행위원 등의 집행부들은 지역의 예술가와 관객, 지역 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

이번 소리축제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이다.

소리축제를 통해 담아낸 우리 전통 음악과 세계 곳곳의 모든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진 25주년의 소리의 역사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어 올해 포스터는 선의 흐름과 전통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 색채로 형상화했다.

얇은 선들이 만들어내는 밀도와 흐름은 수많은 숨결이 모여 하나의 '판'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축제의 역사 속에 축적된 기억과 감동, 그리고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온 소리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최철 신임 조직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성과 동시대성을 함께 품은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올해 소리축제는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우리 음악과 세계 음악이 만나 소통해 온 의미 있는 축제"라며 "올해 소리축제는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과 관객이 함께 모이는 판의 무대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역기업 AI 검·인증 대응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지역기업 AI(인공지능) 검·인증을 지원하며 지역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

시는 10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2026년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AI 신뢰성 확보와 검·인증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AI 신뢰성 검·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주시와 JICA, TTA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또 참석자들은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 구축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인증 연계 체계 마련 △향후 확산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AI 기본법 시행과 글로벌 AI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품질, 안전성, 인공지능 설명 가능성, 알고리즘 편향 점검, 인공지능 투명성, 인공지능 운영 모니터링 등 신뢰성 확보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AI 신뢰성 향상 컨설팅 △AI 신뢰성 확보 지원 △검·인증 사전 준비 및 연계 지원 △AI 신뢰성 실증 인프라 구축 △지역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주형 AI 신뢰성 허브 운영모델 수립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지역 피지컬AI와 농생명, 제조, ICT 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해 지역기업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6호 발간

전주 상권 양극화 심화 '회복-정체-붕괴' 공존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정책 방안 제시 'JJRI 이슈브리프 제26호'를 발간했다.

이슈브리프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6년 1분기 자료(2026.4.30 공표)를 활용해 전북 13개 상권 × 4개 자산군 × 9개 분기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양방향 고정효과 회귀와 Composite Distress Index(CDI)로 분석 결과이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프를 통해 전북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오피스·중대형·소규모·집합 4개 자산군 모두에서 임대가격지수 100 이하, 자본수익률 음(-)을 기록하는 '구조적 가치하락 국면'에 진입했으며, 전국 평균 대비 공실률은 1.5~2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주시 5개 상권 내부의 양극화가 전북 시군 간 격차보다 크다는 점이 주요 발견이다.

2026년 1분기 중대형상가 공실률 기준 전주서부(4.42%)와 전주한옥마을(31.24%)의 격차가 7배에 달하며, 같은 도시 안에서 '회복·정체·급속붕괴' 상권이 동시에 진행되는 비대칭 구조가 확인됐다.

연구원은 4개 구성요소(공실률 수준·공실률 추세·자본수익률·임대가격지수 누적변동)를 Min-Max 정규화 후 가중평균한 Composite Distress Index(CDI)로 분석한 결과 전주한옥마을 중대형(CDI 0.849)이 부실 1위로 나타났고, 정읍중심 중대형(0.682), 전북혁신도시 집합(0.661), 익산역 중대형(0.652)이 뒤를 이었다.

전주한옥마을 위기의 본질은 '관광지 위기'가 아닌 '대형점포 위기'로 파악됐다. 같은 한옥마을 안에서 중대형 공실률은 31.24%인 반면, 소규모 공실률은 0.00%이며 소규모 임대료는 39.88천원/㎡로 중대형(16.61천원/㎡)의 2.4배에 달했다.

이는 한옥마을의 위기가 '임대 단위 대형화와 임차수요 소형화'의 미스매치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전북 집합상가(분양형) 시장의 가격발견 실패 현상도 나타났다. 집합상가에서 공실이 많은 상권일수록 임대료가 오히려 더 높은 '경직 시장' 구조가 확인됐으며 이는 임대료가 시장 시그널이 아닌 분양가에 연동된 호가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원은 전주시 상업용 부동산이 처한 문제 완화를 위해 △전주한옥마을 위기대응 패키지(임대료 안정화 협약·대형점포 분할 인센티브·거점기능 강화) △전주동부 거점기능 재배치(26%대 공실 고착 해체를 위한 공공시설 입지 및 도시재생 연계) △분양형 집합상가 시장개입(상가리스크 등급제·공실상가 활용 인센티브·상권 리셋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청 노인학대 예방의 날 민·관 캠페인 전개

어르신 존중받고 안전한 전북 앞장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 위한 민·관 캠페인을 실시 했다.

캠페인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노인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노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노인 인권 인식 제고와 세대 간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피해자지원제도를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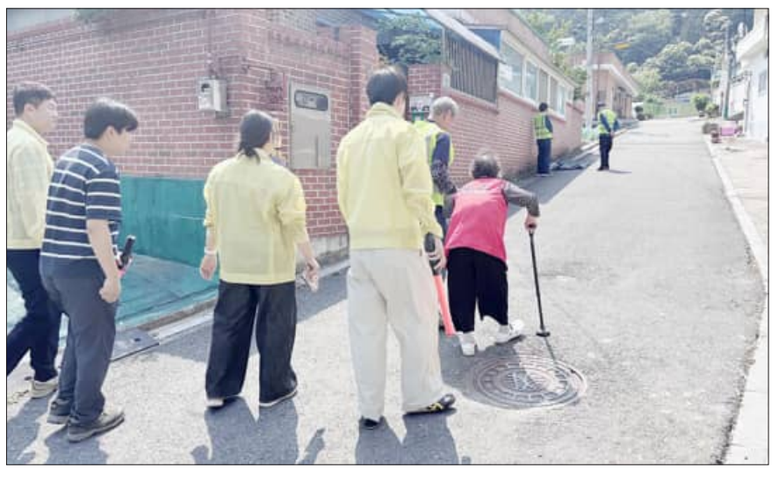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며, "학대 피해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 강화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시공무원·경찰·주민 40여명 참여



전주시가 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한 시민 안전준비를 강화한다.

이에 시는 완산구 일원에서 집중호우·태풍 시 발생되는 산사태 대비 '2026년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주민 대피와 재난 발생시의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전주시 산림공원과·재난안전과 직원 △경찰서 △산림재난대응단 △마을 주민 등 약 4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산사태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는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현장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대피 결정을 내리고,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전파했다.

이어 주민센터와 자율방재단, 산림재난대응단이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산림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대피불응자 대피 지원에 나섰다. 특히 훈련은 산림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난시 주민 비상연락망 가동 △대피 유도 △인원 점검 및 상황 보고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련해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체계 구축 및 재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6월 자동차세 279억 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따라 납부 기한 연장…7월 3일까지

주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한이 3일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42211)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실화재 '과학적 감식' 해답 찾는다

전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0일 실화재 현장 과학적 감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반기 실화재 현장기반 감식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6월 중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며 실제 화재 잔해 속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화재조사관들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개요와 발화 지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실된 가재도구와 집기비품 등에 남은 연소 흔적을 직접 확인하며 화재 패턴을 분석했다.

특히 화재조사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핵심 증거물을 발굴하고 채취하는 감식 기법을 실습하며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증거 확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소방은 이번 교육의 만족도 평가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화재 현장 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매월 열리는 영상포럼과 연계해 최신 조사 트렌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품질 높은 화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전북TP·배터리산업協 '배터리 소재' 인재 양성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19일까지 예비취업자 모집

전북TP-한국배터리산업협회은 배터리 소재·부품 분야 취업 희망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교육과정' 예비취업자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배터리 산업 전문인력 수요 대응에 따른 지역 기업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재 합성 △코인셀 제조 △소재 평가·분석 실습과 기업 현장 견학을 연계해 산업현장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총 120시간 과정이다.

관련해 △배터리 원리와 4대 소재 △시장·정책·기술 동향 등 산업 전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재·부품 설계 △제조 공정 △코인셀 제조 △소재 평가 △분석 실습 등 단계적 학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교육은 △대기업 현직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실무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최신 산업 동향과 현장 경험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 지역 배터리 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운영, 안전관리 체계 등의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

교육은 '예비취업자' 배터리 소재 전문인력 교육과정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교육.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회차별 모집인원은 20명 이내이며 교육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배터리아카데미 홈페이지(www.batteryacademy.or.kr)를 통하면 된다.

대상은 배터리 관련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나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생 편의를 위해 교육비와 중식비가 전액 지원되며, 전북권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되며 출석률 80% 이상 달성 시 한국배터리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된다.

/김영태 기자

군산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6년 재직자 AI 활용 프로그램' 교육을 개최한다. <사진=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의, 재직자 대상 AI 활용 실무교육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개최… AI 활용 역량 강화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군산상공회의소 1층 교육장에서 '2026년 재직자 AI 활용 프로그램'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군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AI 교육 전문기관인 모두의 연구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생성형 AI를 기업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 중심 과정이다. 교육은 총 4회차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Google Workspace 기반 Gemini 활용 방법 △AI로 홍보 콘텐츠 쉽게 만드는 방법 △한 장으로 설득하는 생성형 AI 문서 시각화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ChatGPT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AI 기술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업무 혁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AI 활용 능력은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실무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 기업 재직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전북도 최다 선정 성과

'프로젝트 ON' 가동 성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전북도가 최다 선정 성과를 이뤘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전국 단위 창업지원사업으로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올해 전국 도전자는 약 63,000여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서 전북지역 도전자 중 총 308명이 최종 선정으로 확인됐다.

도내 선정자 일반기술분야 234명, 로컬분야 74명으로 구성됐다.

일반기술 분야 총 234명중 IT 58명, 라이프스타일 48명 순이며 로컬분야 총 74명중 생활 40명, F&B 27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상만 청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높은 선정성과는 지방정부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해 '프로젝트 ON'을 가동한 전북도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신청 지원 등 사전 준비를 지원해 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맞춤형 피드백 등 후속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선정된 창업 인재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초기 멘토링과 AI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편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도 재도전 기회가 제공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의견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12일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전자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날짜를 선택해 멘토링을 신청하면 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도전자들은 원하는 멘토를 선택해 1:1 온라인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및 온라인 멘토링 참여자와 아이디어 보완 제출자는 7월 초 공고 예정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선정평가에서 가점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VC)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공고를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 맛' 선봬

열린 시장 지향…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사)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을 이어간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농부시장 마르쉐는 생산자와 소비자, 자원활동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시장을 지향한다.

도심 속 공공 공간에 작은 시장을 열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화하며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장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12개 시군 20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과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가공 제품 등 70여 품목이 6~7월 농부시장을 찾는 소비자들과 만난다.

전북 고창과 경북의 농업경영체 총 8곳이 참여하는 1차 판매는 6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 농부시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북 사과·사과주스, 참마 분말, 마늘 누룽지, 종자유 등과 고창 수박, 복분자 가공 제품, 블루베리·복분자 발효식초, 땅콩버터 등이 선보인다.

2차 판매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전북 김제의 농업경영체 총 12곳이 출점한다. 경기 지역 제품으로 젤라토, 생오디 및 오디 가공품, 인삼, 현미쌀칩, 새싹보리, 산딸기 가공품이 판매된다. 김제 지역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참기름, 미숫가루, 고사리 장아찌, 블루베리 등도 소비자를 기다린다.

3차 판매는 7월 12일 목동 오목공원에서 열리며, 전북 김제 지역 농업경영체 제품을 다시 만날 수 있다.

한편 농부시장 참여 농업경영체 선정·추천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 경영체들이 농부시장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 반응을 보고, 상품 개선과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은 10일 바이 전주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전북지방조달청>

전북조달청, 바이 전주우수업체 지원

지역기업 성장 및 판로 확대 방안 논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10일 바이(BUY) 전주우수업체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실시했다.

설명회는 바이(BUY) 전주우수업체 협의회 회원사 40여명을 비롯해 전주시청, 전북AI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바이(BUY) 전주우수업체 협의회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제단체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역의 우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조달길잡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주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월드푸드테크컨펙스' 공로상 수상

전북 농생명·바이오 산업 미래 성장동력 추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World FoodTech ConfEx 2026'의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World FoodTech ConfEx 2026'은 월드푸드테크협의회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분야 대표 행사로 △국내외 푸드테크 기업 △연구기관 △대학 △투자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식품산업의 미래 기술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와 함께 △대체식품 △스마트제조 △케어푸드 △업사이클링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기획·추진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 푸드테크팀 신설하고 경영혁신TF 푸드테크 분과를 운영하며 △정책 대응 △신규사업 발굴 △기업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지원기관 △대학 △기업 △투자기관 등 55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분야 △기술지원 △실증 △사업화 연계를 추진해 왔다.

또 기업 현장 방문과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총 11건, 874.51억원 규모의 시책 및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이 중 5개 사업을 실행단계로 연계해 △연구개발 △기업지원 △사업화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여기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산에도 노력해 포럼·컨퍼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교류와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했으며 중동·네덜란드·덴마크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국제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지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공로상 수상은 전북도와 함께 지역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기업·대학·연구기관·유관기관과 협력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농촌유학센터 특화프로그램' 추진

역사·문화·자연환경 교육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재단과 협업해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협재단은 농촌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농가·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사업 △농촌 장학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총 2억원의 농협재단 예산으로 투입해 전국 16개 농촌유학센터에서 농촌유학생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80여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32%)와 체육·건강 분야(28%)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며 풍물·밴드 공연 등의 활동을 펼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력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올해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전국 13개 농촌유학센터가 참여하며 농촌유학생 140명과 지역 학생 95명 등 총 235명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됐다.

각 유학센터는 지역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정량적 성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각 유학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한 장기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전북 완주 운주의 경우 '농촌유학 홈커밍 및 크리에이터 교육', 전남 강진 옴냇골의 '오감 만족 별자리 관측'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과 함께 실제 진로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도시와 농촌 간 교류와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JB 든든 생계비계좌 출시 이벤트' 성료

2026원 캐시백부터 50만원 기프트카드 생활밀착형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고객이 생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금융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JB 든든 생계비계좌 출시 이벤트'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JB 든든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2026원 캐시백을 월 누적 3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는 CU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가입기간 내 누적 25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는 50만원 기프트카드 혜택을 제공했으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 후 개별 안내를 완료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JB 든든 생계비계좌가 고객들의 일상과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천호성 교육감 인수위, 교원단체 일제히 비난

"음주 전력 옹호 발언 유감·3대 교원단체 배제" 규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0일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인선 기준의 도덕성 결여와 교원단체 폐싱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감직 인수위 발표 후 전북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에 있던 인물이 인수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다"며 "천 당선인의 청렴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5급 비서관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전북 교육에 필요한 것은 과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학력 신장과 교권 회복"이라며 "인맥과 진영이 아닌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진정한 변화의 전북 교육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인수위 출범을 축하와 기대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출범 과정의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며 "전북교육의 향후 4년을 설계하는 첫 공식 기구임에도 최소한의 사전 소통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인수위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둘러싼 음주 운전 논란은 단순한 '검증 미흡'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음주 논란 인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등 다른 공직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민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또한 "인수위 구성에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의 경우 3개 교원단체를 인수위원회 동참시켰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교육감인수위원회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모두 11명을 구성했다.

/최성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기록의 보고寶庫' 선봬

8월 27일까지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지난달 29일부터 두 번째 테마전시 '기록의 보고寶庫'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 2월부터 전주와 조선왕실실에 외규장각 의궤 및 전주사고의 실록을 조명하는 특별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첫 테마전시는 '기록의 보고寶庫를 열다' 주제로 주요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실의 기록문화를 전시했다.

이번 두번째 전시는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록과 기억의 관계를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록의 보고寶庫' 전시에서는 3부로 구성됐으며 "조선왕실 본향인 전주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에는 전주와 조선왕실실내 기록문화유산 공간에서는 90일마다 새로운 외규장각 의궤를 선보인다.

영조대 화원員들이 어진을 제작하는 과정과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의궤 옆에는 '기해기사계첩'(1719)에 수록된 기로신耆老臣 이유李濡(1645-1721)와 김창집金昌集(1648-1722)의 초상을 만날 수 있다.

3부 '하늘과 땅, 삶을 그리다'에서는 문자가 아닌, 그림과 도형으로 시공간을 기록한 지도 및 회화를 선보인다. '북방경역도'는 18세기 신경준申景濬(1712-1782)이 제작한 지도로, 고령신씨 귀래정공파 문중이 박물관에 기탁했다.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鄭夢周(1338-1392)와 관련된 두 작품은 역사 속 인물을 기억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국립전주박물관은 테마전시를 통해 조선 기록문화유산에 응답한 다양한 기록들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정소민 기자

전국 16개 대학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

동시 시국선언…선관위 규탄 및 개혁 촉구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일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류이노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오늘(10일) 교내 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전북대 소속 고(故) 이세종 열사를 언급하며, 합당하게 주어져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전북대를 비롯해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부산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해 각각의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 학생사회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해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3대 요구안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선관위 구조 개혁 단행 등이다.

류이노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 '산책하는 집' 노을빛 정원서 전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부안군은 전북도립미술관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산책하는 집' 작품을 오는 8월 20일까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잔디광장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품은 손민아 작가의 '산책하는 집'이다.

이 작품은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현실에 떠밀려 이주를 겪는 청년 세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강요된 이주'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현대미술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일상 속 사색과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미술관 순회전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군산시민예술촌, '어쩌다 예술 키즈데이' 개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원도심의 정취를 간직한 군산 개복동에 위치한 시민예술촌이 이번 주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기자기한 감성으로 채워진 작은 문화 놀이터로 변신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군산시 중정길 17)에서 일상 속 소소한 예술을 경험하는 시민 향유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2026 어쩌다 예술 키즈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쩌다 예술'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연히 문화예술을 마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동안 각기 다른 테마로 총 4회에 걸쳐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주인공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15팀의 꼬마 사장님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플리마켓'이다

<사진=군산시>

아이들이 직접 꾸민 개성 넘치는 부스에서 자신의 손때 묻은 애장품들을 이웃과 거래하는 정겨운 나눔의 장으로 꾸며진다.

아이들은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민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아동·청소년 무용 단체인 '꿈의 무용단 군산'의 축하공연과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오후 5시 30분부터는 야외 주차장에서 영화 상영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어쩌다 예술'의 첫 시작을 순수하고 활기찬 어린이들과 함께 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키즈데이'를 시작으로, 어쩌다 예술이라는 사업명처럼 일상속에서 소소하게 마주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앞으로 세 번 더 선보일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 영등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익산시 영등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 '에스(S)의 인문학: 과학(Science) 그리고 향기(Scent)'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스(S)의 인문학은 예술을 중심으로 향기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인문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된 영등도서관의 프로그램을 한층 발전시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1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부로 나눠 운영된다.

1부 '센트(Scent)+ : 향기에 인문학을 더하다'는 향(香)을 매개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예술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 진행된다.

2부 '예술가의 발명노트 :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가 만나는 인문학 실험실'은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된다.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체험 활동이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1부 '센트'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2부 '예술가의 발명노트'는 8월 13일부터 영등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영등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와 융합 학습이 이뤄지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은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들과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강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마실영화관, 월드컵 대표팀 응원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마실영화관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3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관람하는 단체응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경기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끼며 더욱 몰입감 있는 응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응원전은 마실영화관 1관에서 진행되며, 경기당 약 100명의 관람객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예매는 마실영화관 누리집 배너(네이버폼)를 통한 온라인 예약과 현장 및 전화 접수로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1시 체코전 △6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전 △6월 25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이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대형 스크린과 풍부한 음향 시설을 갖춘 영화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실영화관이 영화 관람을 넘어 지역민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당부

정읍시가 음식물쓰레기에 섞여 들어온 숟가락 등 철제 이물질로 인한 처리 시설 고장과 근로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냄비 뚜껑 같은 철제 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투입 단계부터 철제 이물질을 먼저 걸러내는 '고강도 판자석 점검구'를 설치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바른 배출 요령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버리는 행위 금지 △지정된 전용 수거 용기와 봉투 사용 △동물의 굵은 뼈나 조개류,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금속 식기류 혼입 방지 등이 꼽힌다. 버리기 전에 이러한 물질이 섞이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정읍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힘쓸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가상융합산업대전' 참가 전국무대서 홀로그램 기술 선봬

익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 2026)'에 참가해 '홀로그램 전시 공동관'을 운영한다.

이번 공동관은 '현실을 넘어 산업이 되다 : AI·Hologram'을 주제로 마련됐다. 홀로그램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유망기업 17개사가 참여해 총 2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익산 지역 기업 레인보우핀토스미디어와 아테크넷을 비롯한 참여 기업들은 AI와 홀로그램 기술이 결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전시회와 연계해 오는 11일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홀로그램 기술교류회'도 개최한다.

기술교류회에서는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홀로그램 산업 현황과 사업화 확산 전략을 소개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AI와 홀로그램은 산업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전시와 기술교류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홀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갑오징어 도시' 선포… 갑토리의 날 성황

군산시는 지난 9일 군산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 및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군산 갑오징어의 새 얼굴, '갑토리송'이 최초로 공개돼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행사에서는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의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어업인과 수산자원기관 대표가 함께 '갑토리의 날' 선포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어린아이들은 고리타분한 이론 교육 대신 갑오징어를 비롯해 넙치, 조피볼락 등의 종자를 직접 바다에 방류하며 수산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교육적 효과까지 톡톡히 거뒀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갑토리의 날 선포를 계기로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독창적인 도시 브랜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생태 치유 도시' 대변신

2,437억 원 투입 '왕궁생태복원' 예타 순항… 미래 도시 완성

익산시가 과거 환경오염으로 얼룩졌던 훼손 지역들을 푸른 생태계로 되살려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치유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왕궁 자연환경 복원과 장점마을 도시생태축 복원, 낭산 폐석산 사후관리 등 시의 핵심 친환경 정책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곳은 새만금 상류의 심각한 수질오염과 악취의 온상이었던 왕궁정착농원이다. 정부와 익산시는 2011년부터 총 1,7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1만 3,000마리의 돼지를 감축하는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을 2023년 최종 마무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 전북자치도와 손잡고 무려 182만㎡ 규모에 총 사업비 2,437억 원이 투입되는 '왕궁 훼손생태복원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생태와 문화, 치유가 공존하는 '익산형 K-에코토피아' 조성을 위한 대장정의 길이 열렸다.

집단 암 발병이 발생했던 함라 장점마을(옛 금강농산 비료공장 부지) 역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총 57억 원을 투입해 훼손된 농경지와 공장 부지를 생태습지와 '기억의 숲', 탐방로로 바꾸는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그간 주민지원 대책과 위로금 등으로 2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치료비 지원 등 주민의 아픔을 닦아내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천포천과 용기리 일대의 생태축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과거 불법 폐기물 매립 사고가 발생했던 낭산 폐석산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2024년까지 5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28만 9,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만 2,000톤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추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

아울러 침출수 확산방지를 위한 차수매트 복개와 연직차수벽 설치 등 '발생원인 차단' 중심의 강력한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과거 유출로 오염된 하부 지역 토양과 지하수까지 완벽히 정화할 방침이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익산시는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상처받았던 공간을 생태 복원과 치유,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익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주력산업 AX 혁신 본격화

제조업 AI 전환 추진… 6개 기관 업무협약

군산시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제조 AX 혁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조업의 AI 전환 추진에 나선다.

군산시는 10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군산 주력산업 제조 AX 혁신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의 대표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도입을 촉진해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기관·연구소·대학이 연계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수요에 밀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군산 주력산업 제조 AX 혁신을 위한 협의체 구축 △AX 도입 희망기업 대상 금융·진단·컨설팅 등 맞춤형 연계 지원 △제조현장 AX 아카데미, 카라반 등 현장인력 AI 리터러시 강화 △AX 적용 제품의 성능검증·인증 등 AI 실증 지원 등이다.

군산시는 2025년 산업통상부 주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140억 원 포함)을 확보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AX 실증산단 사업과 연계해 기업 발굴부터 진단·컨설팅, 실증,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힘으로써 군산 제조업의 AX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중소기업 AX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X 협력 생태계 조성과 정책 연계를 지원한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제조 오픈랩 기반 실증과 데이터 수집,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 맞춤형 실무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AX아카데미 및 현장 컨설팅을,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분야 AX 전환 기술지원과 사업화 연계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군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이 AI 기반 제조혁신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조 AX 혁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가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제조 중심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전국 기초지자체 중 단독 수상 '쾌거'

익산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대한민국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올해 포상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곳은 익산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이 직접 동네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하는 생산자이자 보존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기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의 일등 공신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익옥수리조합 건물을 도시재생으로 살려낸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다. 2024년 12월 개관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한 이곳은, 전시와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필수 벤치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기록관 개관 전부터 민간 기록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민기록활동가 양성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어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귀중한 민간 기록들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2024년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춰 최고 수준의 전문 보존 서고를 구축하고 공공기록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익산의 어제와 오늘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땀 흘려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문화도시 익산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송령교 확장 완료… 전면 개통

양방향 통행 가능… 이동 편의 개선 기대

정읍시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기존 5m였던 송령교 폭을 12m로 넓히는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전면 개통했다.

기존 교량은 좁은 폭 탓에 마주 오는 차량이 지나치기 어려웠다. 보행로와 차도가 따로 구별되지 않아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폭 7m, 길이 62.5m 규모의 합성형 라멘교을 새로 놓아 전체 폭을 12m로 늘렸다.

그 결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사라져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친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순정축협에서 송령교 구간) 노선이 완전히 연결됐다.

끊어져 있던 길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한층 매끄러운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송령교 확장 공사 준공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고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송령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교통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전북 유일 '공공생리대 지원'

생리대 지급기 50대 설치

정읍시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 50대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생리대를 쓰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 정책이다.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한 결과 최종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선정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은평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와 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광역시 중구, 전남 목포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이다.

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수동형 지급기 30대, 자동형 지급기 20대 등 총 50대의 기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공공생리대 지원은 단순한 물품 보급을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라며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갑작스러운 불편을 겪지 않게 설치 장소와 운영 방식을 꼼꼼하게 따져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사진=익산시>

익산시, 악취 민원 40% 대폭 감소

익산시가 과거 지리적 특성으로 겪어온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과학적인 행정과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하며 쾌적한 '환경 체감 도시'로 당당히 도약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심 주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외곽에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자리 잡은 익산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20년에는 악취 민원이 3,636건에 달하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명예를 걸고 강력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관련 민원은 2,04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나 대폭 감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도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시는 민원 대응 방식에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했다. 산업단지와 축산농가 등 주요 지점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바람길과 복합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행정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태 조사 결과로도 증명되며 복합악취 농도가 뚜렷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설 개선 유도와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시민 정책 제안 6건 선정

정읍시가 지난 2월 6일부터 한 달여간 접수한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시민 부문 '숲속 아동 발달 센터 조성'과 공무원 부문 '태양광 이정표 설치' 등 총 6건을 우수작으로 뽑았다.

이번 공모는 일상 속 불편을 고치고 지역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창의적인 정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시민 부문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숲세권 도시, 정읍 '숲속 아동 발달 센터' 및 치유놀이터 조성 제안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농촌여행 플랫폼 △정읍 한 달 살기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주요 도로 LED 이정표 설치'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토지 지목 변경과 취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와 '침수 위험 지구 내 빗물받이 표식 설치'가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실제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첨단기업 투자유치 나서

군산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 전문 전시회인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에 참가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군산시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은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제조, 디지털전환(DX),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산업 전시회로, 국내외 유망기업과 투자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다.

시는 행사기간 동안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제도,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투자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미래차·AI·로봇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매력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신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농어촌 경쟁력 강화 2(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전북 고창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심원면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사업이 진행된다.

심원면 소재지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7~2031년까지(5개년) 총 98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면소재지 권역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대폭 확대하고, 인근 배후마을까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전달해 상생발전을 이끌게 된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복지기능의 중심의 △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살림공동체관 △생활편의기반시설(소방도로 확보, 공영주차장 조성, 스마트정류장 설치) 등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도 진행된다.

고창군은 지난 3월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예비계획 수립, 1차 전북특별자치도 현장평가, 2차 해양수산부 서면 및 현장 평가에 면밀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서해안권 특성과 고창군 어촌 거점공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공모 심사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 한뒤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원면은 세계자연유산 갯벌, 어촌체험마을, 염전과 함께 최근에는 노을대교, 고창테마파크가 추진되며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선정은 심원면을 서해안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해양치유의 거점이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롤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니수박 산업 육성 전략 공유

고창군이 10일 오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미니수박 평가회'를 열고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미니수박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평가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고창미니수박연합회, 농축수협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학습단체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는 고창 미니수박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각 작목반에서 생산한 품종별 미니수박의 품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형 수박보다 보관과 소비가 편리한 미니수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7kg 이상 대과를 떠올리지만, 고창에서는 4kg 이하의 미니수박을 전국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주요 품종으로는 애플수박 계열인 '꼬망스', '세자'를 비롯해 보다 큰 중·소과종인 '블랙망고', '블랙보스' 등이 있다.

고창군은 소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니수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종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수박과 차별화된 토양관리·양분관리 기술 교육 등 전문 재배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생산자 조직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지역 내 5개 작목반이 통합해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했으며, 현재 약 100명의 회원이 89.4ha 규모에서 블랙망고수박,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 미니수박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산 기반 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니수박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갈 차세대 전략 작목이다"며 "소비 트렌드에 맞춘 품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고창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공설 자연장지 본격 운영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장례 부담 완화 기대

부안군은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8억원, 도비 6억원, 군비 50억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증가하는 화장 수요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형 자연장 5500기와 수목형 자연장 1600기 등 총 7100기 규모로 조성됐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잔디 아래 또는 수목 주변에 안치하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사용요금은 30년 기준 잔디형 30만원, 수목형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설 자연장지 조성으로 그동안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등용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위탁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설 자연장지는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장사시설"이라며 "많은 군민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열린 의회 구현 나선다

21일까지 의정 슬로건 공모 이벤트 개최

김제시의회가 제10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정 슬로건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이벤트는 시민들의 참신하고 뜻깊은 아이디어를 통해 제10대 김제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의정 가치와 방향성을 정립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기존 제9대 김제시의회 슬로건이었던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10대 의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 비전과 의정 철학을 시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공모 주제는 '제10대 김제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가치를 담은 20자 이내의 문구'이며, 김제시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을 위한 의정 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김제시의회 공식 SNS 4개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중 하나를 선택해 팔로우를 맺은 후, 공고문 내의 QR 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제출 폼에 접속해 슬로건 내용과 팔로우 인증샷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접수된 공모작들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당선작과 20개의 가작을 선발하고, 당선작 중 최종 회의를 통해 제10대 의정 슬로건으로 활용할 최종작 1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10일 김제시의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의회 내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숨쉬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참신한 슬로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해리농협 '농심천심' 앞장

고령 농업인 가정 방문 주거환경 개선 봉사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최근 NH농촌현장봉사단을 통해 고창군 해리면의 고령 농업인 가정을 방문, 노후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취약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라며 "농심천심 정신으로 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갑선 조합장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고령·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 생활불편 해소, 긴급지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군정목표·군정방침 공모

18일까지 접수

부안군은 민선9기 출범에 대비해 정화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북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선9기 출범대응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선 9기 군정의 미래 비전을 담을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제안 공모를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선 9기 군정 철학과 지역의 미래상을 반영한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발굴해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부안군민과 군 산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민선 9기 출범대응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군정 비전과 핵심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소통행정과 부안형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풍요로운 농어촌, 문화관광, 미래산업 육성, 새만금 발전 등 민선9기 핵심 가치를 담은 다양한 의견을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부안사랑상품권을 시상하며 당선작은 오는 24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화영 부군수는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민선9기 부안군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아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안의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농업·농촌 성장동력 확보 나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10일 농업·농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관련 부서장, 전북특별자치도 유용열 스마트원예팀장, 한국농어촌공사 이대석 스마트팜추진단장, 전북연구원 배균기 책임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김제 농업·농촌 성장을 견인할 주요 과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 김제시 스마트농업 재배환경 시설구조 등 종합분석 △새만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세부계획 수립 등이다.

시는 앞으로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과 첨단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농생명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김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김제시 보유한 농생명 자원과 새만금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 버드왓쳐스 데이' 7월 개최

참여형 프로그램 풍성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오는 내달 17~18일(이틀간) 고창군립체육관 일원에서 '2026 고창갯벌 버드왓쳐스 데이(Bird Watcher's Day)'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탐조가 처음인 일반 관람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문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문 탐조단체와 함께하는 탐조 클래스, 갯벌·철새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고창갯벌 철새 퀴즈대회 '버드 마스터 챌린지(골든벨)'가 열리고, 둘째 날인 18일에는 종이 도요새 멀리 날리기 대회 '버드 플라이트 게임'이 진행된다. 현장 참여 이벤트와 경품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갯벌 버드왓쳐스 데이는 탐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행사"라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김제시가 오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역 경제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조사 대상은 김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적극 활용해, 별도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1인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통계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김제시의 총 조사 대상은 약 8,484개소이며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공통항목과 디지털 전환 지표 등 특성 항목을 포함해 구성된다.

김효숙 정보통신과장은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는 만큼,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호응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참여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매주 일요일에 운영하고 교육 참여에 따른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업(㈜지티산업, 대신신재생산업) 2개 사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17일부터 1차 교육((주)지티산업)을 시작해 오는 7월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교육(대신신재생산업)과정을 연속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일상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 작업환경에서 실제 자주 사용하는 업무 용어와 필수 안전 수칙어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어 소통능력 향상과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실시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직원들은 10일 변산면의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를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새만금도시과 직원 10여 명은 양파 수확과 선별, 운반 작업 등에 참여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농업인의 고충을 직접 체감하며 작업에 힘을 보탰고, 농가 역시 적기 수확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만금도시과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2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고창군이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를 기념한 '복분자처럼 진하게! 수박처럼 시원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인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를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벤트 기간 중 고창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90명을 선정하며, 당첨자에게는 기본 답례품과 함께 고창의 대표 특산품인 수박 또는 복분자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와 연계한 이번 이벤트가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이주갑 "군수,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 답하라"

정례회서 입장 공개 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제안 재차 언급
"침묵 아닌 군민 납득할 설명 필요"

이주갑 군의원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침묵과 공방이 아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질의와 군정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여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적 책임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을 군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당시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로 군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각오가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신상발언 이후 현재까지 군수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수를 향해 "공동 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직접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군민들은 더 이상의 침묵이나 공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군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이든 별도의 설명회든 어떠한 방식이든 군민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 경영 인증 획득

국제표준 ISO 37001 취득
반부패 내부통제체계 인정

<사진=완주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가 지난 9일 국제 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반부패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부패위험 평가, 내부통제 체계, 임직원 교육 및 신고제도 등 조직 전반의 부패방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는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또한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청렴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하며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이희수 이사장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부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외식업 경쟁력 강화 모색

남원시는 지난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임직원 및 모범음식점 영업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남도 완도군 음식문화특화거리 및 우수 음식점을 방문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정책과 외식업 운영 사례를 견학해 남원시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 영업주의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완도 음식문화특화거리의 지역 우수 음식점을 방문하여 상차림 구성, 고객 응대 서비스, 위생관리 체계 등 음식문화 선진화 사례를 학습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견학이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농번기 '숨통 틔운다' 현장 맞춤 지원 나서 2(題)

순창군,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집중 추진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한다.

군은 최근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등면 딸기모종 제거 작업을 비롯해 풍산면 고추 유인줄 설치, 금과면 복숭아 봉지 씌우기, 구림면 블루베리 수확 작업 등을 실시하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영농철 적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순창군은 농번기 동안 각 실·과·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고추 유인줄 설치, 딸기순 제거, 매실 수확, 포도 봉지 씌우기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활동이다. 군은 농가별 작업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적기에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남원시는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를 돕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농번기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시는 연간 40일 기준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부식비를 상향 조정해 더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6년 11개 마을로 시작된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누적 327개 마을을 지원하며 농촌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총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8개 마을에 각각 32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공동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번기 공동급식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민생 중심의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장 "통합 재추진 않겠다 약속 환영"

9대 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이제 공동체 회복에 힘 모아야"

유의식 군의장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지방선거 이후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민자치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이날 "제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열며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 속에는 완주의 미래를 향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완주군 유권자 8만7,607명 가운데 5만5,88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한 3만4천여 명의 숫자 안에는 완주 지역 정치가 반드시 읽어야 할 침묵의 민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완주군민은 통합을 주도해 온 정치권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며 "정당정치가 지역정치를 대신해서는 안 되며, 지역정치는 군민의 삶과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주가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일 완주를 방문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1997년 이후 30여 년 동안 갈등과 상처를 반복해 온 완주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 뜻깊은 약속"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투표한 군민과 투표하지 않은 군민, 찬성한 군민과 반대한 군민 모두가 완주의 주인인 만큼 민심을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모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여성단체, 밑반찬 나눔 활동
13개 읍면 새마을부녀회 협력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올해도 13개 읍면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지원 밑반찬 나눔 활동'을 추진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을 돌보고 지역 사회 연대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13개 읍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들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영양을 고려한 반찬을 마련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있다.

여선희 여성단체 회장직무대행은 "지역 여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의 읍·면 활성화 사업은 연말까지 13개 읍면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선정

국비 10억 확보 사업 추진 탄력
북부권 거점공간 기능 개선

완주군의 지역 거점 공간인 '완주군 미래행복센터'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 온 미래행복센터의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신청한 전국 535곳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평가를 거쳐 총 318곳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확보한 국비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대폭 보강하고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도입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고유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1986년 사용승인 된 완주군 미래행복센터는 2003년 완주군이 매입한 이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공간으로 다채롭게 활용돼 왔다.

지난 2009년 지역경제순환센터로 전환 당시 리모델링을 거쳤으나,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시설이 점차 노후화돼 지역 아동과 주민들이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로 불편을 겪어 왔다.

<사진=완주군>

유희태 완주군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북부 6개 면의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거점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의견접수' 운영

행정복지센터·마을회관 순회

남원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인 13개 사업지구의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지한 후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량을 마친 곳은 호곡, 옥전, 평촌, 송내, 강석, 사석, 사매2, 부절, 서곡, 호경, 내기, 대산, 도랑지구로 총 13개 지구다. 의견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6월 5일~25일)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철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경계 확인과 협의를 진행해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원활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구별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8일 도랑지구 금동행정복지센터 △9일 호경지구 호경경로당 △11일 서곡지구 이백면행정복지센터 △16일 사매2·대산지구 사매면행정복지센터 △17일 내기지구 내기마을회관 △18~19일 호곡지구 수지면행정복지센터 △22~23일 옥전·평촌·송내·강석·사석지구 대강행복문화센터 카페 옆 회의실 △24~25일 부절지구 산동면행정복지센터

제출된 의견은 향후 현장 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조정을 거쳐 검토되며,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치 시상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9일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은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齒)로운 노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구강관리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구강검진 심사를 실시한 뒤 구강위생 상태가 우수한 학생 18명을 '건치아동'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또한,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평소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3명을 '건치실버'로 선정해 처음으로 함께 시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순창군은 구강보건의 날 주간을 맞아 시상식 외에도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뮤지컬 공연, 칫솔 바꾸기 캠페인,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전통시장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청년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사회 활력

청년 리빙랩·커뮤니티 모집
최대 300만원 사업비·활동비 지원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순창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창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환경, 관광, 청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으며,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포함된 4인 이상 팀으로, 청년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능기부, 문화예술, 봉사활동, 취업·창업, 자기계발, 생활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커뮤니티에는 팀당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공동체 형성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두 사업 모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 지원

남원시는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침대 매트리스에 서식하는 세균과 진드기, 곰팡이 등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스스로 침구 위생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원시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추진되며, 관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 125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청소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매트리스 청소와 소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자살예방 강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4일 새마을운동 임실군지부와 지역사회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활동은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동 △자살위험 수단 차단 활동 등이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온 새마을운동 임실군지부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장계면, 제36회 면민의 날 개최

장수군 장계면은 10일 장계그라운드골프장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장계면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장계면이 주최하고 장계면이장협의회(회장 최영기)가 주관했으며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회의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면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민속놀이와 면민 화합 한마당 잔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면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장에 김정동 씨(서동마을), 산업공익장에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애향장에 신종순 씨(서울특별시)가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장 수상자인 김정동 씨는 지역 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산업공익장 수상자인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사업 추진에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애향장 수상자인 신종순 씨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우기 대비 진안천 집중 정화 활동 추진

진안군은 10일 기관·사회단체 회원과 진안군청 공직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의 주요 하천인 진안천 집중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주민과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범군민 참여형 환경 정비 활동으로,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를 비롯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가꾸는데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정비 활동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진안용담호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를 사전 수거해 용담호 유입 하천과 용담호 상수원의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 진안군 주요 하천인 진안천의 하천변과 수중 집중 정화 활동으로 전개했다.

또한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안읍 시가지 내 골목길 구석구석 방치되고 적체된 각종 쓰레기 수거도 병행 추진하면서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청정진안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세외수입 운영 평가 '대상'

전북도 주관, 군부 1위 달성 체계적인 징수관리 적극 행정 성과 인정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군부 1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으며 세외수입 징수율과 징수액 증감률,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세외수입 우수사례 제출 및 발표 실적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장수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관리와 효율적인 세입 운영에 힘써왔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납액 관리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군부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장수군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 교부금 7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최훈식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발굴해 군 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산골영화관, 매일 모든 영화 1천원

6월 11일~10월 31일까지 관람 당일 현장 결제

무주군은 '무주산골영화제'의 중심 공간이었던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일 모든 영화를 1천 원에 관람(정상가 7천 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6월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_⑫세 이상 관람가〉를 비롯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_⑫세 이상 관람가〉, 카르스텐 킬레리치 감독의 〈맘보 점보_Ⓐ전체관람가〉가 상영된다. 온라인 예매는 할 수 없으며 관람 당일 영화관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무주산골영화관은 무주읍 예체문화관 2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디관 57석·태권관 41석 규모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임정희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기존에는 '시네마 데이'인 매주 수요일에만 1천 원 관람이 가능했지만 10월까지는 요일이나 영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1천 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며 "읍면 이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민 김 모 씨(40세, 무주읍)는 "요새는 영화관람료가 비싸서 도시에서는 4인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려면 솔직히 부담된다"라며 "무주산골영화관은 정상가도 저렴한데 10월까지는 1천 원이고 산골극장은 공짜라니 자주 와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산골영화제 때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속에서 온 가족이 행복했는데 이젠 매일이 즐거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5월 방문객 107만명 돌파

2018년 대비 동기간 127% 급증 사계절 관광 콘텐츠 완성

임실군의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관광특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방문객 통계 분석 결과, 지난 5월 한달간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은 총 107만6,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실 방문의 해'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관광 마케팅을 펼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2만1,608명보다 5만4,968명 증가한 수치로 관광 경쟁력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올해 5월의 성장세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무대로 개최된 '임실N장미축제'의 성공이 견인했다. 봄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임실N장미축제는 유럽형 장미원에 수만 송이의 장미와 임실만의 대표 브랜드인 치즈를 결합해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가 더해지면서 가족단위와 연인, 젊은층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었고, 이는 5월 관광객 증가를 이끈 핵심 동력이 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383만 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돌며 상반기 관광지표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장기적인 통계에서도 임실군의 관광 성장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18년 연간방문객은 498만5,87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18만3,132명으로 증가해 8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2018년 5월 방문객이 47만3,147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5월 방문객은 12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축제 콘텐츠 고도화, 지속적인 관광 마케팅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성과로 분석된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더해, △봄(임실N장미축제), △가을(임실N치즈축제), △겨울(산타축제)로 이어지는 사계절 대표 축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임실군은 특정 시기에만 방문객이 쏠리던 과거의 한계를 넘어 계절마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언제 찾아도 즐거운 관광도시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이는 천만 관광시대를 향한 가장 든든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최훈식 군수, 여름철 재해 우려지역 점검

집중호우·장마철 대비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9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군수는 장계천 홍수정보제공지점과 동정마을 인명피해 우려지역, 당골저수지, 계북면 어전리 산사태 취약지역 응급복구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하천 준설 상태와 배수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주민 긴급대피 연락체계 구축 여부, 비상대처계획 수립 상황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관리 현황과 응급복구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최훈식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9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사진=장수군>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클린농촌단 운영

농어촌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임실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읍·면별 클린농촌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내 방치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주요 마을안길과 농경지 주변,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임실군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원(국비 1억5천만원·군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방치 폐기물 수거와 클린농촌 조성 캠페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3일 안전교육 및 쓰레기 수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농촌에서 '마음의 위로' 찾는다!

노인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이 지역 내 기관들과 연계해 추진했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촌 활력 증진과 더불어 군민의 심신을 치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안성면과 적상면 노인복지센터 2곳, 무주읍과 안성면 지역아동센터 2곳 이용자 1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총 8회차에 걸쳐 △'도자기 풍경 만들기'와 △무주산 농산물로 '블루베리잼 & 크럼블 만들기', △'시금치, 감자, 완두콩 재배 및 수확 체험' 등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내 우수 치유 농장인 안성 '정원산책'과 '소호팜하우스', 적상면 '와우체험농장' 등 3곳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와 무주만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회차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

임실군이 마약류 범죄 없는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시기를 맞아, 일부 농가나 가정에서 단속 대상인 줄 모르고 텃밭이나 화단 등에 관상용 또는 치료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방문이 잦은 관내 읍·면사무소 12개소에 일제히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법 재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양귀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 한 주(포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자생적으로 자란 양귀비나 대마라 할지라도 텃밭이나 마당에서 제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키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의료원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7천만원 확보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먹거리를 매개로 주민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마을 단위 공유주방 조성 및 개선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과 안부 확인, 공동체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사회적 고립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7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진안군은 백운면을 대상지로 신청한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유주방 기능을 보강하고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먹거리 나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반찬 나눔과 안부 확인, 주민참여형 돌봄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고 촘촘한 마을 돌봄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농협은행, 익산시에 300만원 상당 물품 전달

익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시는 10일 NH농협은행 이영우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식품 기업을 격려하는 '희망농업 우리농가 동행기업' 현판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이 기탁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영우 부행장은 "기탁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의 상생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10톤 수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9일 군산 새만금 3호 방조제 일원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해 총 10톤을 수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군산해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연안환경순찰단, 군산해양경찰재향경우회 등 약 1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정화활동 참가자들은 안전한 정화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새만금 3호 방조제 약 2km 구간(신시도~야미도 방조제 일원)을 도보로 이동하며 연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플로깅)하는 등 집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산해경은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SNS를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어업인 대상 해양쓰레기 저감 방송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및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병을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하는 '우생순 사업' 동참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택시업계, 이웃 돕기·장학금 총 300만원 전달

정읍시 개인택시조합과 내장산콜운영위원회가 10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정읍시에 총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의 회비로 마련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쓰인다.

같은 날 내장산콜운영위원회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건넸다. 위원회 소속 택시 종사자 390여 명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뜻을 모았다.

두 단체를 이끄는 최정열 조합장은 "유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택시 업계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금산면 주민단체, 쓰레기 대신 꽃을 심다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해바라기 꽃밭 조성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원평천 일원의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하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산면은 지난 9일 원평천 일원 약 2,000m2 규모의 부지에서 금산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청년회 등 지역 주민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바라기 식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던 하천변 공간에 해바라기를 식재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해바라기 모종 식재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원평천 환경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방치된 공간을 꽃밭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숲길 따라 웃음꽃 활짝 남원동부노인복지관, 힐링 나들이

남원시가 직영중인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5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곡성치유의숲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힐링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 산림치유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참여 어르신들은 숲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숲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며, "싱잉볼 명상을 통해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고창 해리면, 복분자 수확 농촌일손돕기

농촌의 어려움 함께 나눠

고창군 해리면 주민행복센터가 지난 9일 복분자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해리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복분자 수확과 선별 작업, 농장 주변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탰다.

농가는 "수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바쁜 일정에도 직원분들이 찾아와 도와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홍정묵 해리면장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이번 일손돕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오디 농가 찾아 구슬땀

부안군 교육청소년과는 지난 9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포면 오디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 10여명은 오디 수확 작업에 참여해 적기 영농을 지원했으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농가주는 "수확철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도움을 주어 힘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직원들과 함께 일손돕기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군민에게 힘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완주 화산면부녀회, 85세 이상 어르신 반찬 지원

완주군 새마을지도자화산면부녀회가 지난 9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85세 이상 어르신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바쁜 영농철 속에서도 화산면부녀회 회원 29명이 어르신들을 위해 열무와 얼갈이로 김치를 준비했다. 또한,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한우사골곰탕 후원이 더해져 훈훈한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화산면 부녀회원들은 직접 담근 김치와 후원받은 한우사골곰탕을 관내 85세 이상 어르신 3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이웃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강은아 화산면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올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절치부심' 천호성호 출발, 보답 아닌 미래 위한 인선이어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삼수(三修) 끝에 마침내 전북 교육의 지휘봉을 잡게 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행보에 전북도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 동안 전북 교육의 변화를 외치며 패배의 고배를 마셨고, 그 안에서 절치부심하며 갈고닦은 교육 철학을 마침내 펼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인으로서의 기쁨도 잠시, 6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러싼 안팎의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현재 언론과 교육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우려는 일부 세간의 오해처럼 대규모의 인사 검증 파동이나 전면적인 인사 파행 수준은 아니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무게감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당선인의 고심 흔적도 엿보인다. 다만, 전체 12명의 위원 중 천호성 후보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사 3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거 승리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보답성 인선'이 아니냐는 눈초리다. 여기에 출범 직전 터져 나온 현직 교사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맞물리면서, 새로 출발하는 천호성호의 출범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당선인의 취임을 돕는 임시 조직이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북 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고, 당선인의 공약을 정교한 정책으로 다듬는 '싱크탱크'이자 사실상 첫 번째 인사(人事) 시험대다. 그렇기에 임기 시작 전부터 불거진 이 작은 잡음과 어수선함을 천 당선인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 선거와 달라야 한다. 진영의 이익이나 선거 캠프의 지분 나누기보다 '아이들의 미래'라는 절대 가치가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보다 교육감 자리가 지니는 무게를 잘 아는 인물이다. 두 번의 낙선이라는 쓰라린 경험 속에서 그가 마주했던 전북 교육의 현실과 도민들의 염원은 결코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절치부심하며 매달렸던 현장의 목소리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대의(大義)였다. 그렇기에 지금 천 당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공신들에 대한 부채 의식을 과감히 떨쳐내는 결단력이다.

앞으로 전북 교육을 이끌어갈 인재들은 철저히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기준으로 발탁되어야 한다. 캠프 기여도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과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진용을 갖추어야만 출범 초기의 어수선함을 가라앉히고 도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오랜 격언은 교육 행정에서 더욱 절대적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 3수 끝에 출범하는 천호성호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모든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법적 리스크는 당선인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천호성 당선인은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 그가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교육감이 된 만큼, 전북의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혜안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보답성 인선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전북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진정한 전문가들과 함께 당당하게 닻을 올리기를 바란다. 위기와 혼란을 넘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천호성호'의 성공적인 출발과 위대한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 설

몸통은 비켜간 국외연수 수사, 도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두고 도민사회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연수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로 행정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송치하면서도, 정작 연수의 주체인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실수사'이자 '방탄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실무자들의 행정 처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외연수 예산이 어떤 과정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런데도 실무자와 대행업체만 책임을 지고 정작 예산의 수혜자이자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은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벗어난 결과가 됐다.

물론 형사처벌은 명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질문이 남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졌는지, 경찰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런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예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도민들의 실망은 크다. 더욱이 수사 결과마저 의문을 남긴다면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남긴 의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해소하고, 누구도 법과 원칙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의 상식에 응답하는 길이다.

▲ 오늘의 시

벌레 먹은 희망으로 / 박 노 해

텃밭에 심은 배추를 뽑아
대충 씻어 쌈을 싸 먹는데
배추벌레 한 마리가
늘씬늘씬 기어간다

하 고놈 참 이쁘다
고맙다
너 아직 살아 있구나

그냥 눈물이 난다
흠집 하나 없는
아주 매끈한 배추처럼

벌레 하나
범접 못하게 혹독하게
인간의 욕망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내 언 몸 속 죽은 듯한
배추벌레들눈뜨며 꿈틀댄다

아 나 살아있다
이리 푸른 속울음으로
벌레 먹은 희망으로
나 살아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여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 독자투고 |

생명을 살리는 몇 분의 배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출퇴근길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몇 분간 꼼짝하지 않는 신호로 답답한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중대한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긴급차량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단 1분의 차이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재난의 규모를 크게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해당 진행 방향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녹색으로 바꾸거나, 기존 신호 주기를 조정해 긴급차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교차로에서의 충돌 위험을 줄이며, 무엇보다 위급한 시민에게 더 신속히 도달하기 위한 생명 안전 시스템인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 일반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신호 흐름으로 인해 잠시 혼란이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갑작스럽게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진행하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 불편이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긴급차량이 서둘러 지나가는 그 몇 분은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교차로 앞에서 시민 여러분이 잠시 양보해 주신 몇 분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찾는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

실제 전북소방에서는 2026년 1분기에 550여 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균 6분 47초, 출동시간의 40.6%를 단축하였다. 이런 효과에 기반하여 우선신호시스템이 없는 외곽 시군 119구급대에서 긴급환자를 전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시스템을 장착한 구급차량이 병원까지 에스코트해 주는 권역연계 출동을 강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안전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 긴급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잠시 멈추어 기다려 주는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불편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는 단순한 양보를 넘어,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존중의 실천인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몇 분의 배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주덕진소방서 구급팀장 임채화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누리파크 물놀이장

방화동 자연휴양림 계곡물

장수 트레일 레이스

승마 체험장

장수군 '100만 관광 시대' 열다!

장수누리파크부터 산악관광까지
2025년 연간 관광객 80만 명대로 대폭 증가

아름다운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장수군은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한 걸음씩 '여행의 목적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천국'이라 부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누리파크'를 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2024년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여기에 '장수트레일레이스' 성공적 개최는 장수군에 '한국의 샤모니'라는 별칭을 안겨주며 산악 스포츠의 성지이자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장수군은 장안산, 방화동·와룡 자연휴양림, 봉화산 철쭉단지 등 기존 관광명소의 시설을 꾸준히 보강해 장수만의 자연과 계절별 매력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수치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장수군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은 2021년 245,668명, 2022년 305,025명, 2023년 386,388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4년에는 851,736명, 2025년에는 805,117명을 기록했다. 2025년 수치에는 장안산 등 일부 개방형 야외 관광지점이 제외됐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한 흐름이다.

방문객 수에서 제외돼 별도 집계된 2025년 장안산 방문객은 175,268명, 장수IC 앞 빨간건물인 '장수만남의광장' 방문객은 100,183명에 달한다. 공식 통계 밖에서보면 지난해 100만 관광객이 넘었고 장수의 산과 광장, 휴식형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면적의 7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장수의 고원과 자연은 발전에서 한발 비켜난 덕분에 도심의 산들이 발전을 이유로 훼손될 때 역설적으로 자연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장수군의 관광 미래를 만나보자.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이는 곳, '장수누리파크'

장수 관광 변화의 중심에는 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되고 있는 '장수누리파크'가 있다. '장수누리파크'는 야외 놀이터와 물놀이장, 실내 놀이시설, 캠핑장, 카라반, 요리체험장, 산책 정원 등이 한곳에 모인 가족형 복합 관광지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부모는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여름철 '장수누리파크'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피서지로 변신한다. 야외 놀이터는 마인크래프트 모형을 테마로 한 발물놀이장으로 운영되고, 바닥분수대와 어린이수영장 등 시원한 물놀이 시설이 마련된다.

실내 시설도 '장수누리파크'의 강점이다. 장수어린이생활문화센터는 2023년 10월 문을 연 키즈카페형 실내 놀이시설로, 붕붕뛰틀과 볼풀장, 무인체험공간, 열린 도서관, 커뮤니티룸,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상상나래 누리놀이터 역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기 좋은 공간이다.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레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 휴식공간과 수유실도 마련돼 있다.

'장수누리파크'의 장점은 놀이시설에만 있지 않다. 계절별 야생화가 피어나는 유럽풍 가족 정원은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고, 이츠레드 요리체험장은 장수의 농특산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수한우 불고기, 장수사과 찰떡, 마들렌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활동이 되고, 부모에게는 장수의 맛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이 된다.

관광객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낮에는 아이들과 물놀이와 실내 놀이를 즐기고, 정원 산책과 요리체험을 한 뒤 캠핑장이나 동물카라반에서 장수의 밤을 보내는 식이다. 한곳에서 놀이, 체험, 휴식, 숙박이 이어지면서 누리파크는 장수 관광의 첫 방문지이자 체류형 관광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하고, 부모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더해지면서 '장수누리파크'는 장수를 다시 찾게 만드는 군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 장안산, 장수만남의광장 등 기존 관광명소와 새 거점이 만든 관광 흐름

장수 관광객 증가세는 누리파크 하나만의 성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장안산'은 장수를 대표하는 산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 '방화동·와룡 자연휴양림'은 숲과 계곡, 캠핑을 즐기려는 방문객에게 익숙한 휴식처다.

'봉화산 철쭉단지'는 봄철 장수의 풍경을 알리는 계절 명소이며, 국가생태관광지인 '뜬봉샘과 수분마을', '장수승마레저파크' 등도 각자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장수IC 앞 빨간건물이라 불리는 '장수만남의광장'도 장수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수만남의광장'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쉬어가고 소통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곳의 중심 시설인 레드하우스에서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 레드푸드를 활용한 식음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장수만남의광장' 내 60여 종의 열대 식물과 초화류로 채워진 300여 평 규모의 실내정원은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어린이를 위한 야외 대형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만남의광장'은 지역작가 작품 전시, 지역활동가와 청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름 그대로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장수를 오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맛과 문화, 사람을 함께 만나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트레일러닝·캠핑·승마·MTB 등이 어우러지며 '국제적 산악관광 중심지'로 성장

장수 관광을 넓히는 또 하나의 축은 산악레저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의 산줄기와 숲길, 마을길을 달리는 산악러닝 대회다. 2022년 약 150명으로 시작한 대회는 2023년 800여 명, 2024년 3,000여 명, 2025년 5,000여 명이 장수를 찾으며 불과 몇 년만에 국내 대표 산악러닝 대회로 자리잡았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의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 응원단, 운영진, 자원봉사자까지 장수를 방문한다. 이들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한다.

최근에는 장수트레일레이스 국내 최초 100마일 코스 운영,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프로젝트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MTB대회, 승마, 산악레저 캠핑 페스티벌 등으로 산악관광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장수의 산악관광은 트레일·MTB·캠핑·승마가 서로 다른 종목임에도 하나의 자연 흐름속에서 이어지며 생활과 산업·정주로 확장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트레일빌리지 조성, 민관협력, 지역경제 연계는 장수군을 거대한 개발이 아닌 자연·환대·청년 참여가 어우러진 장수형 산악 생활권으로 이끌고 있으며 장수는 지금 '한국의 샤모니'를 넘어 국제적 산악관광 중심지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

▲ 누리파크부터 산악레저까지 '100만 관광 장수시대'를 향한 다음 걸음

장수군의 관광객 증가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 관광명소를 꾸준히 다듬고, 가족형 관광지인 장수누리파크를 군 대표관광지로 키우고, 산악레저와 체험 콘텐츠를 넓혀 온 시간이 쌓이며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4만 명대였던 방문객이 2025년 80만 명대로 늘어난 것은 장수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앞으로의 과제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경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기억을 남기도록 하는 일이다. '장수누리파크'를 중심으로 자연휴양림, 장안산, 뜬봉샘, 장수만남의광장, 장수트레일레이스, 군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와 농특산물 체험을 촘촘히 연결하면 장수 관광의 체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장수누리파크,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장안산,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방화동·와룡자연휴양림, 전국의 러너들이 달리는 장수의 산길까지. 장수의 관광자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장수군의 '100만 관광도시' 도전은 방문객 숫자를 키우는 목표이자 장수의 자연과 체험, 산악레저와 환대, 지역 먹거리와 쉼의 공간을 하나로 엮어가는 과정이다. 그 흐름이 이어질수록 장수군은 '한번쯤 가고 싶은 명소'로 '100만 관광 장수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